

2024년 상반기 창원지역 고용동향

2024. 8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을 빠르게,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쉬움.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시점

- 2024년 7월 31일 기준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업종별, 근속연수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연령별, 제조업별, 전체산업)
- 고용보험 상실자의 상실사유

II. 요약 및 시사점

◎ 창원지역 근로자 수 상반기 기준 4년 연속 증가

- 2024년 상반기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근로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한 27만 6,548명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 서비스업이 14만 8,83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고, 제조업 근로자 수도 11만 3,95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 수가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업종 증가세 뚜렷, 기계류 업종은 감소

- 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1만 9,086명), '기타 운송장비'(1만 116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3.7% 증가하여 전년 상반기에 이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지역내 완성차 수출 물량 증가와 방위산업 수출계약, 조선업의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전장기기의 수요 증가로 전기장비 업종의 근로자수도 함께 증가하였지만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기계산업(2만 9,172명 -1.9%)의 근로자수는 감소하였음.

◎ 전체 신규취업자수 대폭 감소, 제조업에서 40대 이하의 신규채용 감소 두드러져..

- 창원 2024년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7만 818명(-1.6%), 퇴직자 수는 6만 3,522명(-1.7%)으로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그 중 신규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 경력취업자 수는 증가한 모습임. 이는 불확실한 경기 여건으로 지역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축소한 가운데, 채용시 상대적으로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상반기 기준 전체 신규취업자와 경력취업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각각 32.3%, 11.4%로 대폭 증가하였음, 반면 제조업에서는 40대 이하 신규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동기 대규모 신규채용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풀이됨.
- 퇴직사유별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3만 5,284명(비중 55.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1만 4,455명(22.8%),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8,366명(13.2%) '폐업 및 도산' 2,220명(3.5%), '정년' 1,218명(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Ⅲ. 창원시 고용동향

1. 창원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2024년 상반기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¹⁾에 가입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27만 6,548명임. 이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수치임.
- 규모별로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0만 5,681명(3.5%), ‘300인 이상’ 6만 7,148명(4.3%)으로 증가한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만 6,425명(1.7%)으로 감소하였고 ‘10인 미만’ 6만 7,294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2023		'2024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체	251,440 (-0.1%)	257,693 (2.5%)	264,678 (2.7%)	270,874 (2.3%)	271,015 (2.4%)	276,548 (2.1%)
10인 미만	65,861 (5.5%)	65,981 (0.2%)	67,202 (1.9%)	67,325 (0.2%)	69,103 (-0.2%)	67,294 (0.0%)
10인 이상 100인 미만	92,289 (-1.4%)	94,956 (2.9%)	97,836 (3.0%)	102,098 (4.4%)	100,704 (3.8%)	105,681 (3.5%)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3,144 (-1.9%)	34,825 (5.1%)	36,656 (5.3%)	37,063 (1.1%)	36,761 (2.3%)	36,425 (-1.7%)
300인 이상	60,146 (-2.9%)	61,931 (3.0%)	62,984 (1.7%)	64,388 (2.2%)	64,447 (3.1%)	67,148 (4.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2.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

- 2024년 상반기 기준 업종별(대분류)로 모든 업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전체 피보험자 수가 4년 연속 증가하였음.

창원지역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4만 8,83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고, 제조업 근로자 수도 11만 3,95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 건설업은 1만 485명으로 0.4% 증가하였음.

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2023		'2024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체	251,440 (-0.1%)	257,693 (2.5%)	264,678 (2.7%)	270,874 (2.3%)	271,015 (2.4%)	276,548 (2.1%)
제조업	106,694 (-2.5%)	108,689 (1.9%)	110,525 (1.7%)	111,930 (1.3%)	112,818 (2.6%)	113,950 (1.8%)
서비스업	131,551 (2.0%)	135,892 (3.3%)	140,599 (3.5%)	145,236 (3.3%)	144,435 (2.5%)	148,836 (2.5%)
건설업	9,878 (-1.1%)	9,931 (0.5%)	10,274 (3.5%)	10,441 (1.6%)	10,430 (-0.2%)	10,485 (0.4%)
기 타	3,317 (1.5%)	3,181 (-4.1%)	3,280 (3.1%)	3,267 (-0.4%)	3,332 (0.8%)	3,277 (0.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계 및 장비'가 2만 9,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만 9,086명, '전기장비' 1만 8,535명, '기타 운송장비' 1만 116명, '1차 금속' 1만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식료품'(18.2%), '자동차 및 트레일러'(5.3%), '기타 운송장비(3.7%),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3.7%), '전기장비'(2.8%), '1차 금속'(2.0%)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음.
- 지역 내 완성차 수출 물량 증가와 방위산업 수출계약, 조선업의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인해 해당 산업의 근로자가 수가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자동차 전장기기의 수요 증가로 전기장비 업종의 근로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음. 반면 제조업 내 가장 큰 근로자 수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산업 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음.

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제조업	106,694 (-2.5%)	108,689 (1.9%)	110,525 (1.7%)	111,930 (1.3%)	112,818 (2.6%)	113,950 (1.8%)
기타 기계 및 장비	29,256 (-5.3%)	29,240 (-0.1%)	29,493 (0.9%)	29,729 (0.8%)	29,688 (0.4%)	29,172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663 (-5.8%)	16,976 (1.9%)	16,935 (-0.2%)	18,123 (7.0%)	18,406 (7.2%)	19,086 (5.3%)
전기장비	15,383 (18.9%)	17,109 (11.2%)	18,198 (6.4%)	18,034 (-0.9%)	17,947 (3.1%)	18,535 (2.8%)
기타 운송장비	9,615 (-4.0%)	8,826 (-8.2%)	9,179 (4.0%)	9,756 (6.3%)	10,003 (7.1%)	10,116 (3.7%)
1차 금속	9,883 (-12.9%)	9,505 (-3.8%)	9,615 (1.2%)	9,806 (2.0%)	10,057 (2.2%)	10,005 (2.0%)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7,722 (-3.6%)	7,954 (3.0%)	8,193 (3.0%)	8,706 (6.3%)	8,815 (4.8%)	9,028 (3.7%)
전자부품	6,380 (-0.3%)	7,051 (10.5%)	7,259 (2.9%)	6,985 (-3.8%)	6,948 (-1.9%)	7,005 (0.3%)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3,470 (0.7%)	3,550 (2.3%)	3,288 (-7.4%)	2,354 (-28.4%)	2,329 (-17.6%)	2,315 (-1.7%)
식료품	1,608 (-1.6%)	1,692 (5.2%)	1,763 (4.2%)	1,792 (1.6%)	2,024 (12.5%)	2,119 (18.2%)
고무 및 플라스틱	1,728 (-1.6%)	1,646 (-4.7%)	1,440 (-12.5%)	1,504 (4.4%)	1,457 (-0.7%)	1,443 (-4.1%)
기타	4,986 (-6.5%)	5,140 (3.1%)	5,162 (0.4%)	5,141 (-0.4%)	5,144 (0.7%)	5,126 (-0.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 제조업은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의복제외)',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을 포함함.

○ 창원지역 근속연수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년 미만'이 7만 9,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 3년' 6만 9,460명, '5년 - 10년' 4만 3,356명, '3년 - 5년' 3만 347명, '10년 - 15년' 2만 2,6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을 의미하는 10년 이상의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산업은 19.5%(5만 3,901명), 제조업은 29.9%(3만 4,071명)로 장기근속자 비중이 10.4% 더 많았음.

근속연수별 피보험자 수(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2022 상		'2023 상		'2024 상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264,678 (2.7%)	110,525 (1.7%)	270,874 (2.3%)	111,930 (1.3%)	276,548 (2.1%)	113,950 (1.8%)
1년 미만	75,935 (5.1%)	23,522 (8.8%)	78,281 (3.1%)	24,158 (2.7%)	79,484 (1.5%)	24,478 (1.3%)
1년 - 3년	61,295 (1.8%)	20,243 (5.1%)	65,465 (6.8%)	22,665 (12.0%)	69,460 (6.1%)	25,984 (14.6%)
3년 - 5년	34,242 (1.0%)	13,636 (-4.9%)	30,754 (-10.2%)	10,385 (-23.8%)	30,347 (-1.3%)	9,972 (-4.0%)
5년 - 10년	41,752 (0.1%)	19,948 (-5.2%)	43,194 (3.5%)	20,681 (3.7%)	43,356 (0.4%)	19,445 (-6.0%)
10년 - 15년	22,085 (7.9%)	12,728 (8.4%)	22,572 (2.2%)	12,741 (0.1%)	22,639 (0.3%)	12,765 (0.2%)
15년 - 20년	10,038 (-2.7%)	5,798 (-7.8%)	11,271 (12.3%)	6,909 (19.2%)	12,064 (7.0%)	7,305 (5.7%)
20년 - 25년	6,921 (-0.9%)	4,793 (-4.1%)	6,924 (0.0%)	4,563 (-4.8%)	7,144 (3.2%)	4,551 (-0.3%)
25년 - 30년	6,534 (7.9%)	5,102 (8.9%)	6,810 (4.2%)	5,397 (5.8%)	6,233 (-8.5%)	4,871 (-9.7%)
30년 이상	5,876 (1.9%)	4,755 (0.6%)	5,603 (-4.6%)	4,431 (-6.8%)	5,821 (3.9%)	4,579 (3.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4만 3,178명)가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1만 6,345명), ‘도·소매’(1만 5,703명), ‘전문, 과학 및 기술’(1만 4,479명), ‘운수 및 창고업’(1만 635명), ‘숙박 및 음식점’(1만 467명), ‘교육’(1만 243명) 등이 뒤를 이었음.

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2023		'2024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서비스업	131,551 (2.0%)	135,892 (3.3%)	140,599 (3.5%)	145,236 (3.3%)	144,435 (2.5%)	148,836 (2.5%)
보건업· 사회복지	34,784 (6.0%)	36,983 (6.3%)	39,070 (5.6%)	40,393 (3.4%)	40,774 (3.8%)	43,178 (6.9%)
사업시설 관리·지원	14,047 (-8.2%)	14,104 (0.4%)	14,767 (4.7%)	15,949 (8.0%)	15,778 (4.3%)	16,345 (2.5%)
도·소매업	14,783 (0.1%)	15,143 (2.4%)	15,677 (3.5%)	15,963 (1.8%)	15,588 (-0.7%)	15,703 (-1.6%)
전문, 과학·기술	12,404 (5.3%)	13,137 (5.9%)	13,680 (4.1%)	14,238 (4.1%)	14,480 (4.2%)	14,479 (1.7%)
운수·창고	10,529 (-4.3%)	10,407 (-1.2%)	10,288 (-1.1%)	10,496 (2.0%)	10,545 (2.6%)	10,635 (1.3%)
숙박·음식점	8,547 (4.2%)	8,627 (0.9%)	9,383 (8.8%)	10,003 (6.6%)	10,211 (4.3%)	10,467 (4.6%)
교육	8,751 (3.9%)	9,214 (5.3%)	9,474 (2.8%)	9,923 (4.7%)	9,898 (5.8%)	10,243 (3.2%)
협회·단체 수리·기타	5,884 (1.7%)	6,099 (3.7%)	6,238 (2.3%)	6,307 (1.1%)	6,165 (0.2%)	6,295 (-0.2%)
부동산	5,525 (6.8%)	5,668 (2.6%)	5,503 (-2.9%)	5,488 (-0.3%)	5,472 (-0.6%)	5,388 (-1.8%)
공공·국방· 사회보장	5,957 (7.5%)	6,210 (4.2%)	6,109 (-1.6%)	6,046 (-1.0%)	5,079 (-5.6%)	5,825 (-3.7%)
금융·보험	5,161 (-0.3%)	5,072 (-1.7%)	4,932 (-2.8%)	4,925 (-0.1%)	4,954 (-0.6%)	4,901 (-0.5%)
정보통신	2,535 (0.2%)	2,775 (9.5%)	2,741 (-1.2%)	2,778 (1.3%)	2,785 (-1.3%)	2,723 (-2.0%)
예술·스포 츠·여가	2,644 (4.9%)	2,453 (-7.2%)	2,737 (11.6%)	2,727 (-0.4%)	2,706 (0.8%)	2,654 (-2.7%)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3.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취업)·상실(퇴직) 현황

- 2024년 상반기 기준, 노동이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7만 81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 퇴직자 수는 6만 3,522명으로 1.7% 감소했음.
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1.0% 증가한 6만 4,042명, 신규취업자는 21.3% 감소한 6,776명임.
- 신규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이는 불확실한 경기 여건으로 지역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축소한 가운데, 채용시 상대적으로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 및 퇴직자 수(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2023		'2024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누적)	
취업자	59,100 (-11.3%)	67,907 (14.9%)	71,918 (5.9%)	71,982 (0.1%)	128,305 (-1.4%)	70,818 (-1.6%)
신규취업자	6,850 (-16.9%)	7,804 (13.9%)	8,153 (4.5%)	8,605 (5.5%)	14,085 (-2.0%)	6,776 (-21.3%)
경력취업자	52,250 (-10.5%)	60,103 (15.0%)	63,765 (6.1%)	63,377 (-0.6%)	114,220 (-1.3%)	64,042 (1.0%)
퇴직자	63,135 (-5.1%)	61,640 (-2.4%)	67,317 (9.2%)	64,596 (-4.0%)	119,581 (-4.0%)	63,522 (-1.7%)

※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 '전분기 피보험자 + 당분기 취득자 - 당분기 상실자'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4년 상반기 기준 연령별 신규취업자와 경력취업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각각 32.3%, 11.4%로 대폭 증가하였음. 반면 29세 이하의 신규취업자와 경력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특히 제조업에서 40대 이하의 신규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동기 대규모 신규채용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풀이됨.

연령별 취업 및 퇴직자 수(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2022 상		'2023 상		'2024 상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취업	71,918 (5.9%)	20,936 (2.0%)	71,982 (0.1%)	21,159 (1.1%)	70,818 (-1.6%)	19,772 (-6.6%)
신규취업자	8,153 (4.5%)	2,180 (-9.3%)	8,605 (5.5%)	3,135 (43.8%)	6,776 (-21.3%)	1,775 (-43.4%)
29세 이하	5,371 (9.1%)	1,431 (-6.6%)	5,510 (2.6%)	2,014 (40.7%)	4,139 (-24.9%)	1,245 (-38.2%)
30~39세	714 (-16.2%)	395 (-25.3%)	1,150 (61.1%)	809 (104.8%)	550 (-52.2%)	289 (-64.3%)
40~49세	408 (-2.4%)	134 (-6.9%)	356 (-12.7%)	149 (11.2%)	300 (-15.7%)	80 (-46.3%)
50~59세	759 (-6.3%)	140 (4.5%)	683 (-10.0%)	91 (-35.0%)	588 (-13.9%)	78 (-14.3%)
60세 이상	901 (12.6%)	80 (23.1%)	906 (0.6%)	72 (-10.0%)	1,199 (32.3%)	83 (15.3%)
경력취업자	63,765 (6.1%)	18,756 (3.5%)	63,377 (-0.6%)	18,024 (-3.9%)	64,042 (1.0%)	17,997 (-0.1%)
29세 이하	13,999 (1.9%)	5,054 (-0.1%)	12,901 (-7.8%)	4,558 (-9.8%)	12,016 (-6.9%)	4,013 (-12.0%)
30~39세	10,931 (0.1%)	4,073 (3.9%)	11,020 (0.8%)	4,204 (3.2%)	10,804 (-2.0%)	4,256 (1.2%)
40~49세	12,970 (4.2%)	4,192 (3.5%)	12,558 (-3.2%)	3,907 (-6.8%)	12,304 (-2.0%)	4,102 (5.0%)
50~59세	12,922 (6.8%)	3,296 (-1.1%)	12,353 (-4.4%)	3,181 (-3.5%)	12,715 (2.9%)	3,273 (2.9%)
60세 이상	12,943 (18.7%)	2,141 (22.1%)	14,545 (12.4%)	2,174 (1.5%)	16,203 (11.4%)	2,353 (8.2%)
퇴직	67,317 (9.2%)	19,956 (5.6%)	64,596 (-4.0%)	18,893 (-5.3%)	63,522 (-1.7%)	18,219 (-3.6%)
29세 이하	16,225 (9.9%)	5,192 (3.8%)	14,057 (-13.4%)	4,105 (-20.9%)	13,017 (-7.4%)	3,664 (-10.7%)
30~39세	11,278 (2.8%)	4,114 (3.9%)	11,009 (-2.4%)	4,066 (-1.2%)	10,541 (-4.3%)	3,869 (-4.8%)
40~49세	12,873 (8.8%)	4,129 (7.7%)	12,164 (-5.5%)	3,892 (-5.7%)	11,947 (-1.8%)	3,908 (0.4%)
50~59세	13,098 (9.9%)	3,510 (3.1%)	12,541 (-4.3%)	3,462 (-1.4%)	12,487 (-0.4%)	3,360 (-2.9%)
60세 이상	13,843 (14.0%)	3,011 (11.8%)	14,825 (7.1%)	3,368 (11.9%)	15,530 (4.8%)	3,418 (1.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 '전분기 피보험자 + 당분기 취득자 - 당분기 상실자'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4년 상반기 기준 퇴직 사유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정2에 의한 자진퇴사’가 3만 5,284명(비중 55.5%)로 가장 많았고,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1만 4,455명(22.8%),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8,366명(13.2%), ‘폐업 및 도산’ 2,220명(3.5%), ‘정년’ 1,218명(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퇴직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자발적 퇴직은 감소하고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는 증가하였음.

2023년 사유별 퇴직자 수(전년동기대비)

(단위 : 명)

퇴직 사유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36,735	(56.9%)	35,284	(55.5%)	-3.9%
계약만료, 공사종료	14,537	(22.5%)	14,455	(22.8%)	-0.6%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6,960	(10.8%)	8,366	(13.2%)	20.2%
폐업, 도산	2,462	(3.8%)	2,220	(3.5%)	-9.8%
정년	1,333	(2.1%)	1,218	(1.9%)	-8.6%
이중고용	744	(1.2%)	745	(1.2%)	0.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512	(0.8%)	458	(0.7%)	-10.5%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804	(1.2%)	374	(0.6%)	-53.5%
고용보험 비적용	372	(0.6%)	244	(0.4%)	-34.4%
분류불능	137	(0.2%)	158	(0.2%)	15.3%
계	64,596	(100%)	63,522	(100%)	-1.7%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비적용 제외, ()는 전체 퇴직자 중 비중